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 탐색



200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민 강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 탐색

지도교수 이 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민 강

김민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주 심 철학박사 이정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이경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희숙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가. 적응유연성(adjustment resilience)	5
나. 보호 요인(protect factor)	5
II. 이론적 배경	7
1. 이혼가정과 자녀의 적응	7
가. 이혼가정의 특성	7
나.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8
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10
2.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위험 및 보호 요인	11
가. 적응유연성의 개념	11
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13
3.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위험 및 보호 요인	15
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	16
나. 이혼가정 아동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17

Ⅲ. 연구방법	24
1. 연구모형	24
2. 연구대상	25
3. 측정도구	25
4. 자료수집	28
5. 자료분석 방법	29
Ⅳ. 연구결과	31
1.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의 차이	31
2.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	32
3. 보호 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 예측력 분석	39
Ⅴ. 논의 및 결론	48
1. 논의	48
가.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48
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	49
다. 보호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의 예측력 검증	54
2. 연구요약	57
3.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2
부록-설문지	68

표 목 차

<표 1> 비이혼·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 요인	24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25
<표 3> 질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수	26
<표 4>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 평균차 검증	31
<표 5> 8개의 보호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33
<표 6> 학교적응유연성 요인과 보호 요인간의 상관	33
<표 7>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비이혼가정)	35
<표 8>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부-동거 가정)	36
<표 9>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모-동거 가정)	37
<표 10>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상·하위집단 분포	40
<표 11> 보호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 판별함수 산출결과(부-동거 가정)	40
<표 12> 보호 요인별 산출된 구조계수(부-동거 가정)	41
<표 13>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부-동거 가정)	42
<표 14> 보호 요인에 의한 집단 분류결과(부-동거 가정)	42
<표 15> 보호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 판별함수 산출결과(모-동거 가정)	43
<표 16> 보호 요인별 산출된 구조계수(모-동거 가정)	44
<표 17>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모-동거 가정)	45
<표 18> 보호 요인에 의한 집단 분류결과 (모-동거 가정)	46

Study of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Min Kang, Kim

*Educational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rotective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Are th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between children who are from divorced families and those who are not from divorced families.; Second,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Third, Will protective factors be able to predict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who are from divorced families. Protective factors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clud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in Busan from 265 divorced families and 275 non-divorced families. Participants completed Scales of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enting Attitude,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between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nd children from non-divorced families. Second, the most protective factor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regardless of families. Third, protective factors investigated in this study effectively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but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as they live with father or mother.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investigated the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for the first time. Discussions were made with the further research direc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conclusion, protectiv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thus schools should help students have higher level of protective factors.

key word: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protective facto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전통적 가족형태인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족가치간의 혼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의 변화와 함께 이혼, 실종, 사망, 병거 등과 같은 사유의 증가로 가족구조상의 변화는 물론 기능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8년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건수가 116,294건으로 최초로 10만 건을 넘었으며 그 이후로도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혼가정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가정수를 살펴보면, 1993년 전체 59,313건 중 40,821명으로 약 69%이고, 1998년에도 약 72%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8년에도 이혼한 가정은 전체 116,535건 중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정은 28,517건, 2명은 27,759건, 3명 이상은 4,686건으로 이혼한 가정 전체의 약 54%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가정은 많으나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부모의 이혼과 별거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ook(1982)에 의하면 아동에게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위기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위기원이 이혼임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비이혼적 생활의 파괴는 자녀에게 정서적 갈등과 부적응, 장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고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이란 가족의 불행으로서 거의 필연적으로 자녀의 행동문제와 심리적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Skitka와 Frazier(1995), Hetherington(1993), Wallerstein 및 Kelly(1980) 등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자기비하, 분노, 공격성, 우울, 부적응, 무책임, 정서적 불안정, 타인과의 상호작용 문제, 학업성적 부진, 반사회적 행동 등 커다란 위기감을 주는 사건으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 한쪽 부모와만 살아가는 자녀들 모두가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적 문제 등을 보이며 부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혼가정 아동의 연구들은 이혼을 가족구성원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의 위기 및 도전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Murandky와 DeMarie-Dreblow(1995)는 이혼가정 자녀와 비이혼가정 자녀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고, Kogos와 Snarey(199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 발달을 연구한 결과 남녀 모두 이혼가정에서 자란 경우 불화하는 부모 양편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역할조망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는 또 윤리적 민감성과 도덕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김혜숙, 2004, 재인용).

다시 말해 이러한 고위험의 스트레스들은 아동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위협이 기회로 사용되기도 한다.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회복능력을 가지는 아동들은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이들의 유능감(competence)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보호 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능력을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이처럼 적응유연성 개념은 아동의 결점이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역경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설보호 청소년(여은선, 2005; 이재술, 2008), 결손가정(김현경, 2003; 임병숙, 2004), 빈곤가정(진혜민, 2007; 조혜정, 2002),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이미연, 2006; 이상준, 2006) 등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몇몇 연구자들(강가영, 최은미, 박국중)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강가영(2006)은 이혼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하여 개인적, 가족관련, 사회·환경적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위한 보호 요인으로는 계획성과 통제감, 민주적 학교분위기, 역할모델의 존재, 교사의 지지, 교과과정 외 활동 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차이를 보이는 보호 요인으로는 통제감, 민주적 양육태도, 형제 및 자매의 존재, 가족의 지지로 나타났고 이혼가정 청소년 중 높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집단과 낮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보호 요인으로는 계획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사의 지지, 친척의 지지, 역할모델의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 중 높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집단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으로는 계획성,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과과정 외 활동참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혼가정 청소년들이 고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요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의 보호 요인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동에게도 적용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은미(2007), 박국종(2007)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은미(2007)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유능감, 대인관계기술, 교사의 지지와 민주적 학교분위기로 나타났고, 박국종(2007)은 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알아보았는데,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이 양부모가정에서는 대인관계기술과 내외통제 소재가 적응유연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부모가정은 가족해체의 원인에 따라 이혼, 사망, 별거, 유기, 미혼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집단과 비이혼가정 집단 간 학교적응유연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한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되 학교적응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보호 요인으로는 많은 것을 들 수 있으나 지금까지 연구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다룬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인으로 개인적 보호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기술을, 가족관련 보호 요인으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를, 학교·사회적 보호 요인으로는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대한 보호 요인의 집단예측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적응유연성(adjustment resilience)

발달과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긍정적 발달결과를 이끄는 능력(이지연, 2006)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선(1988)이 개발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보호 요인(protect factor)

보호 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저항하게 만들고 개인의 적응방식이나 능력을 길러주어 체질적인 위험 요인이나 스트레스 생

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완화시키거나 완충시켜주는 개인 혹은 환경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보호 요인이란 이혼가정 아동들이 고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라 보며,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포함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혼가정과 자녀의 적응

가. 이혼가정의 특성

이혼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삶의 큰 변화를 겪게 하는 사건이다. 이혼은 부 또는 모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정서적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양육부모의 이러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

먼저 이혼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이다. 부부의 한편이 없는 상태의 가정경제는 이혼 전에 비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Holden과 Smock(1991)은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생활수준은 결혼시보다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문제가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대부분 이혼 후 혼자서 양육모나 양육부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족전체로 보았을 때 경제적 수입의 감소이며 특히 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연히 어머니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한 어머니는 대체로 자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이나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며 자녀의 건강과 영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illiams, 1990: 박명숙, 1996).

둘째, 이혼을 경험한 이혼가정은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 이혼 후 여성은 우울, 분노와 상실감, 외로움의 감정을 경험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세상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세상은 냉혹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느낌, 엄마와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다(조홍식 외, 1997). 또한 이혼은 남성의 구타, 도박, 음주, 무능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 떠나고 자녀와 남게 된 부는 더욱 문제행위들이 심각해져서 심한 정서적 문제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문선화, 1999).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양부모가족 사이에서 가질 수 있었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멀어지게 된다.

셋째로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이혼가정 양육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이다. 또, 혼자서 부나 모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과중으로 인하여 아동에게도 신경질적이 되기 쉽고, 감정적으로 아동을 대하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아동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홍식 외, 1997). Kurdek(1981)는 실제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별로 없고 덜 애정적이며 훈육방식에 있어서 독선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육부나 모 자신의 정서적 혼란으로부터 온 것으로, 부모역할 능력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서지영, 2002, 재인용).

나.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

적응이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의 규범, 질서 등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개인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김승미(1998)는 적응을 개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에 넘쳐있으며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이혼직후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적응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Hethreington, 1989)를 고려하면 부모이혼 후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행동·사회적 적응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첫째로, 심리적응의 문제이다.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로는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혼한 가정의 아동들이 비이혼가정의 아동보다 우울과 불안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del, 1990; Emery & Forehand, 1993; Wallerstein, 2000). 어린 아동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적인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한다(Wolchik, 2002).

둘째로 행동 적응의 문제이다. 이혼 후 적응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는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 적응문제이다. 이혼가정 자녀들이 비이혼가정의 자녀보다 공격성, 행동장애와 같은 행동적응문제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Kelly, 2000). 특히, 이혼가정의 남아가 비이혼 가정의 남아보다 충동성, 과잉행동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가출, 퇴학, 비행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 Zill, 1986; Kelly, 2000).

셋째로 사회 적응 문제이다. 아동의 사회 적응문제는 학업성적과 또래 및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Hethrieinton(1982)은 이혼가정 아동들이 비이혼가정의 아동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매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주소희, 2004)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아동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부모의 이혼은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자녀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행동, 인지능력, 신체·정서적 안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남아의 경우 분노발작, 다툼, 악한 자를 못살게 굴기, 속이기, 거짓말,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기 등의 반사회적 행동과, 불순종, 충동적, 공격적 행동과 같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정서적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오은순, 1997).

학령기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인지적 성숙은 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와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학령기의 중요한 자아발달은 바깥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 학문적 기능을 익힘으로써 촉진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 Wallerstein(1993)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들은 자신이 나쁜 행동을 했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죄책감과 자기비난은 성장을 저해하고 자신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김경집, 2004, 재인용). 따라서 부모의 이혼은 아동에게 초조, 우울 등과 같은 내적인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학업성적 저하, 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재선(1994)은 결

손 가정아와 일반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결손 가정아의 경우,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과 학교생활에 대한 일반적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김보경(2001)은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별 차이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학교에 대한 일반적 적응,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이혼가정 아동은 성별, 나이, 학업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하위요인이 적었으나, 비이혼가정과 세부적인 비교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이혼가정 아동은 비이혼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의 하위요인별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점수대가 낮음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보경, 2001).

2.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위험 및 보호 요인

가. 적응유연성의 개념

같은 어려움 하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 모두가 부적응적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역경에 대해 개인

마다 다른 적응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 이러한 개별적인 적응 수준의 차이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결점 대신 강점에 초점을 둔다. 적응유연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ili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적응유연하거나 또는 적응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취약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외적 자원을 사용하고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ed-Victor & Strong, 2002). Kashubeck과 Christensen(1992)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내는 개인의 적응적 반응이 적응유연성이라고 하였고, Nash와 Brown(1999)은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적응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빈곤 가정 청소년(박현선, 1998),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이지연, 2006), 시설보호 청소년(여은선, 2005)의 적응유연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적응유연성에 대한 정의에 있어 학자마다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적응유연성은 위험 요인에의 노출을 전제로 하며 보호 요인의 작용을 통해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또는 유능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의 조합인 것처럼, 적응유연성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자신의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sten, Best & Garmezy(1990)은 적응유연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규명하였다. 첫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강점 또는 능력으로써 이는 ‘고난 극복(Overcoming odds)’을 의미한다. 즉, 고위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적응유연성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의 '대처(coping)'이다 예컨대, 갈등이 많은 가족 내에서 적응유연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trauma)으로부터의 '회복(recovery)'으로서, 위기사건 후에도 잘 기능하는 아동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념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발달과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긍정적 발달결과를 이끄는 능력(이지연, 2006)”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1) 위험 요인

위험 요인이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상황이나 변인을 말한다(김재한, 2003). Garmezy(1983)는 위험 요인을 일반아동들과 비교하여 아동이 어떤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아동의 생물학적, 유전적 속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떤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을 위기집단, 위기환경이라 하면 위기집단의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부적응적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장애의 발달과 관련된 다수의 위험 요인들을 규명해 왔는데 크게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정과 사회환경 특

성의 세 가지로 규명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특성은 개인적인 특성의 측면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신체적 질병, 지적 손상 등을 들 수 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더 상처받기 쉽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 및 가족 특성은 부모와 가족 내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부모의 만성적 질병 뿐 아니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병리적 문제와 부부불화 및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역기능적인 가족특성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환경 특성은 가족환경을 총체적인 환경특성으로 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스트레스와 생활사건과 같은 요인이다(박현선, 1998). 그러나 다양한 위험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이 아동의 부적응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들 요인이 독립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즉, 다양한 위험 요인의 규명과 더불어 이들 연구자들은 어느 특정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하기보다는 다수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부적응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재한, 2003).

(2) 보호 요인

적응유연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는 위험 상황에서 역기능과 장애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보호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면이다. Hernandez(1993)는 보호요인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의 부정적 영향들을 경감시키는 개인 혹은 환경적 특성들로 정의되고 개인내적, 환경적 과정 또는 특정한 산물을 산출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고, Hernandez&Milstein(1996)은 이러한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진혜민, 2007, 재인용).

적응유연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능감’이다. 적응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위험 요인(risk facto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능감을 보여주는 적응적 특성은 위험 요인의 영향을 매개하는 ‘보호 요인(protect factor)’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성경, 2002).

김선희와 김경연(2001)에 의하면 보호 요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위험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둘째, 위험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연쇄반응을 감소시키며, 셋째, 자아존중감 혹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넷째, 발달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개방시켜 위험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킬 기회를 확대한다.

보호 요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이 부재하거나 위험의 반대양상이 곧 보호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Jessor(1991)는 보호 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험 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위험 요인이 존재할 때 가시화된다고 하였다(박국종, 2007, 재인용). 여기에서 적응과 적응유연성간의 중요한 개념적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적응의 개념이 위험 요인 여부와 무관한 다소 중립적인 개념이라면, 적응유연성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위험이나 역경을 전제로 보호과정을 내포하는 개념이다(김현경, 2003).

3.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위험 및 보호 요인

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과 유연성에 관한 연구가 보편적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왔고, Moos와 Schaefer(1993)은 변화와 스트레스의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놀랄 만큼 유연적이라고 하였다.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유연성은 중요한 변인이 되었는데,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지각과, 공감, 문제해결, 협력과 의사소통, 직업에 대한 목표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Cowne et al., 1990).

부모의 이혼이 부모, 자녀 모두에게 위험수준이 높은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위험의 상황에서도 학교나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응적인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파악하여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부적응적인 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하지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무시되어졌던 것은 사실이다(Mullholland et al., 1991).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자신과 개인을 둘러싼 가족,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져 온 것이다(Kurdek, 1981; Werner, 1994; 서지영, 2002, 재인용).

Hetherington(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적능력과 자아효능감이 높으며 자신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기질적으로 쉬운 아동들은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은 미래에 대해 계획적이고 문제해결능력 수준이 높아
서 더욱 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적인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
전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과 자신이 가진 유연성
의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에 더 진취적이 될 수 있고 새롭게
나타나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이처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써 유연성은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개념 중 하나이다.

나. 이혼가정 아동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이혼가정 아동들의 적응유연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과 문헌
에서 유연성의 개념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지만, 다수의 보호적인 변인
들이 다른 영역들에서 확인되어져왔다. 많은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위험 및 보호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이혼가정 아동의 위험 요인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적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기질 등이 있다.

성별을 고려한 초기의 연구들은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부모의 이혼에
보다 취약하다고 제안했다(Emery, 1982). 남아들은 보다 공격적인 행동들
과 감소된 학업 수행, 더 많은 알코올과 약물 남용을 나타내며, 이혼에 적
응하는데 있어 여아들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Bergstrand,

1998). 이러한 이유에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이성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향이 더 많아 일관적인 남성 역할 모델을 박탈당하며, 부모들이 남아들 앞에서 보다 많이 싸워 많은 가정불화에 노출된다는 것이다(Bergstrand, 1998). 어떤 연구들은 여아들에 대한 이혼의 영향이 지연되거나 보다 잠재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여아는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이성관계에서 집중되어 나타나 남성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보인다(Bronfenbrenner, 1992; 지은선, 2001, 재인용). 아동 성별의 영향에 대한 불일치는 부모와 아동의 성별간의 조합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 Santrock과 Warshak(1979)은 동성의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이 이성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더 잘 적응되는 것을 알아냈다. 동성의 부모와의 동거가 보호적인 요인이 된다고보다, 이러한 차이가 아버지의 보호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비무선적인 선택을 반영할 수도 있다(Emery, 1988).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유연성에 대한 연구에서 동거 부모와 아동의 성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이혼에 따른 위험 요인으로서의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상태에 대한 역할이 조사되어져 왔지만 명확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나이든 아동들에 비해 어린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덜 잘 적응한다고 제안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결론을 얻는데 실패해왔다. Amato와Keith(1991)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령전기 아동들에 비해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좀 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던 아동일수록 청소년기에 적응문제를 가질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근거하여, 가장 안전한 결론은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이혼에 잘 혹은 잘못 적응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인지 능력, 발달 과업들 그리고 가족 외적인 지지에 의해 촉진받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위험 혹은 보호 요인으로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의 이혼에 따른 정서적인 적응에서 보다 많은 문제들과 연관된다고 보고했지만, 그것은 또한 아버지와의 더 좋은 관계와 연관된다(Tschann, Johnston, Klein, & Wallerstein, 1989). 이러한 연구자들은 아버지들이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은 아버지들이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들이 더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들의 기질이 환경으로부터 다른 상이한 상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가능한 중재과정을 제안한다. 또한 기질과 이혼에 대한 연구에서, 반사회적인 부모들은 보다 많이 이혼을 하거나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자녀를 둘 가능성 모두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성격과 같은 제 3의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Lahey, Hartdagen, Frick, McBurnett, Connor, & Hynd, 1988)고 주장도 있다.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 요인들은 부모의 갈등, 양육 태도, 별거 부모와의 접촉, 경제력 등을 포함한다.

Amato와 Keith(1991)은 아동들에 대한 이혼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의 상실, 경제적인 박탈 및 부모 상호간 갈등 등 세 가지의 이론적인 관점들에 대한 경험적인 지지를 연구한 결과 갈등 가설이 가장 강하게 지지받는다. 갈등은 양육을 혼란시키고, 그로 인해 아동들의 행동 문제를 이끌어 낸다(Fauber, Forehand, Thomas, & Wiersen, 1990). 그리고 다른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생활과 비교했을 때,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협력적이거나 거의 협력하지 않고 떨어져있을 때 가장 잘 적응된다고 알려진 반면, 부모가 계속 갈등상태에 있을 때 가장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Mnookin, 1992).

Stolverg와 Bush(1985)는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적응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변인이라고 했고, Kelly(1988)는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 훈육에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일관성 없는 훈육과 줄어드는 통제가 자녀들로 하여금 더 공격적이 되고 문제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았다(지은선, 2001, 재인용). Fauber등(1990)은 부모들 간의 갈등이 거부적인 스타일의 양육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아동에게서 외현화된 문제와 내재화된 문제 모두와 관련된다. 이렇게 좋지 못한 양육은 아동에게 위험 요인으로 다른 위험 요인들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아동들과 별거부모간의 빈번한 접촉은 흔히 이혼 후의 더 나은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어떤 연구들은 그러한 관계를 발견해왔으나(Hetherington et al., 1982) 다소 놀랍게도 여러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접촉의 양과 아동의 적응간의 어떤 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Thomas & Forehand, 1992). 몇몇 최근의 연구는 빈번한 아버지와 접촉이 표현되어지는 행동문제들의 측면에서 남아들에게는 부정적이지만, 여아들에게서는 긍정적임을 제안한다(Healy, Malley, & Stewart, 1990). 또한, Amato와 Gilbreth(1999)는 1990년대의 연구들이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별거 부모, 특히 아버지와 접촉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별거 부모와의 접촉에 관한 연구는 다소 혼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별거 부모와의 접촉 여부는 아동들에게 위험 요인이라기보다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들은 별거 부모와의 관계나 성별의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동의 이혼 후 적응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결과,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 후에 적응 문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혼에 의한 이러한 계층에 속하게 된 더 많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Bergstrand, 1998). 이혼 후의 수입 상실은 더 적은 재정적인

자원을 갖게 되는 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활에서 많은 잠재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사, 전학, 친구들과의 접촉 상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Amato와 Keith(1991)는 경제적 불이익은 이혼 후 아동의 기능에서 적은 양의 차이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다.

(2) 이혼 가정 아동의 보호 요인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적 요인들로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 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적응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인과 환경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도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pencer et al, 1993; Rutter, 1988; 강가영, 2006, 재인용). Bandura(1982)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다고 생각하면 자기효능감 기대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며, 능력에 성공을 귀인 시킬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다(이미연, 2006, 재인용).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계획, 학교생활의 적응까지도 영향을 미치고(유효현, 2000),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은 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내면적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김지영, 2002).

김희수(2001)에 의하면 대인관계기술이란 상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 상호이해, 교환, 적응, 만족스러움, 상호이익추구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박국중, 2007, 재인용). 박국중(2007)은 한부모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측면의 보호요인을 알아보

있는데 대인관계기술과 내외통제 소재가 적응유연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김현경(2003)의 연구에서도 양부모가정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의 개인적 보호요소를 비교할 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가정 아동들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 등이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온정, 애정 및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훈육을 제공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낮은 질의 모-자 관계를 갖는 아동들에 비해 행동 문제를 덜 나타내고, 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과 보다 나은 학업 수행을 보인다. 이선경(1997)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모 자녀 관계의 질, 아동의 지적 능력,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의 발달, 도덕성 발달 및 문제행동 등 다양한 측면의 발달과 관련되며 부모의 지지가 아동, 청소년기 적응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의 지지란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체계가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Wierson과 Forehand(1992)는 한쪽 부모와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가 유연성을 얼마나 증대할지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제시해왔는데, 그 중 하나는 부모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자녀에게 안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부모에게 적절한 훈육을 촉진해줄 것이라고 한다. 또한 Mena et al 등(1987)은 가족의 지지구조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와주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박현선, 1998, 재인용).

이혼 가정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외 사회적인 요인들로는 부모 이외의 성인 양육자와의 접촉, 사회적인 지지 등이 있다.

가족 외적인 자원들은 조부모, 다른 친척들, 상담 기관 직원들 및 교사들,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한 최소한의 어떤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혼보다는 다른 영역의 유연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과 성인간의 진실한 관계가 보호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졌다(Gelman, 1991). Santrock과 Warshak(1979)은 별거 부모, 친척들, 보호시설 양육자, 교사 등 가족 외의 성인 지지자와의 접촉의 양이 부모의 이혼 후 아동의 기능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여러 연구들에 근거하여, 접촉의 질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Jenkins & Smith, 1990). 한미현(1996)은 사회 환경이 학교와 가정으로 국한되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비교적 좁은 학생들은 제한된 지지 망을 가지게 되므로 교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의 관심과 온정은 이혼 후 아동의 긍정적인 적응에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owen 등(1990)은 가족 외의 성인과 아동기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관련됨을 알아냈다. 또래는 집단규범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적응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다(Matthews, 1987; 강가영, 2006, 재인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표1>과 같다.

<표1> 비이혼·이혼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 요인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0부를 배부하여 652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료는 282부였으나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256부를 사용 가능한 자료로 확보하였다. 비이혼가정 아동은 단순무선표집하여 275부를 분석하였다.

<표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성별		학년		전체
	남	여	5학년	6학년	
비이혼가정	142 51.6%	133 48.4%	130 47.3%	145 52.7%	275 100.0%
이혼가정	114	142	117	139	256
	(134)	(122)	(117)	(139)	(256)
전체	256 100.0%	275 100.0%	247 100.0%	284 100.0%	531 100.0%

3. 측정도구

본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 수는 <표3>과 같다.

<표3> 질문지의 구성 내용 및 문항수

구 분			문항수	Cronbach's α
개인적 보호요인	자기효능감	일반적	17	.88
		사회적	16	.68
	대인관계기술		7	.73
가족관련 보호요인	부모 양육태도	부	5	.79
		모	5	.78
	가족의 지지		6	.84
학교·사회적 보호요인	교사의 지지		6	.84
	친구의 지지		6	.84
	학교 흥미		7	.76
학교적응 유연성	규범 준수		6	.73
	성취 태도		8	.63
	학교적응 유연성 전체		21	.84
	기타		4	
총 문항 수			83	

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e과 Jacob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고 김복환(200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과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의 구성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재는 6문항,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재는 17문항 총 23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의 리커트 방식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즉시 시작하기 어렵다’를 비롯한 몇 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8,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8로 나타났다.

나. 대인관계기술

Sc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 Change Scale; RCS)를 바탕으로 박현선(199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기술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다. 부모 양육태도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와 박현선(1996)의 연구에서 개발, 구성한 양육태도 중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하위척도 5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 있고,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양육태도가 .79, 모양육태도가 .78로 나타났다.

라.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

Hernandez(1993)가 제작한 가족과 선생님, 친구와 학업관련 사회적 지지 문항을 박현선(1998)이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1문항(고

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격려해 준다)을 삭제하고 6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방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에서 가족·친구·교사 지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 .84로 나타났다.

마. 학교 적응유연성

Hernandez가 사용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설문조사(School Interest Questionnaire)와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 행사 참여로 구성된 학교생활 적응척도(민병수, 1991)를 박현선(199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문항을 본 검사에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준수 등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관련이 적은 1문항(학교에서 근신,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을 제외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채점 방식은 단순 누가식으로 총합을 사용하되, 학교규범 준수를 비롯한 몇 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이 척도에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하위항목으로 학교흥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 규범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 성취태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가. 예비조사

실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3일에 예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인원은 남 18명, 여 14명, 계 32명이었다. 예비조사 시 결과 문제가 있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자에게 수정·보완은 하지 않았다.

나. 본 조사

본 조사는 2008년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자가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특활 및 재량 등의 수업 시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별도의 유의사항과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검사시간은 40분 정도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단계는 질문지 제작,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SPSSWIN(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1>의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이혼가정 아동집단과 이혼가정 아동집단 간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에 대한 평균차 검증(independent two-samples t-test)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2> 「비이혼가정과 이혼가정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비이혼가정 및 이혼가정 아동집단에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과 8개 보호 요인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8개의 보호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혼가정의 경우 부-동거 가정 아동과 모-동거 가정 아동을 구분하였다.

<연구문제 3>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대한 보호 요인의 집단예측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이혼가정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8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활용하여 이들 상·하위 집단의 판별에 8개로 구성된 보호 요인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판단은 $\alpha=.05$ 의 수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먼저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이 학교적응 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몇 가지 학교·사회적 보호 요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한편 특히 이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보호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의 차이

<연구문제 1>에 따른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이혼가정 아동집단과 이혼가정 아동집단 간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평균점수에 대한 평균차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4>과 같다.

<표4>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 평균차 검증

종속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학교흥미	비이혼가정	275	18.79	3.40	4.76	.000
	이혼가정	256	17.28	3.88		
성취태도	비이혼가정	275	20.83	3.57	5.90	.000
	이혼가정	256	18.94	3.80		
규범준수	비이혼가정	275	26.68	3.01	4.30	.000
	이혼가정	256	25.50	3.30		
유연성 전체	비이혼가정	275	66.31	8.15	6.23	.000
	이혼가정	256	61.73	8.77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이혼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간에는 학교적응 유연성의 3가지 하위요인 및 유연성 전체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혼가정 아동은 이혼가정 아동에 비하여 유연성 전체 점수(비이혼가정 M=66.31, 이혼가정 M=61.73)를 포함하여 하위영역 모두에서 점수가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혼가정의 아동은 비이혼적으로 비이혼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

<연구문제 2> 「비이혼가정과 이혼가정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비이혼가정 및 이혼가정 아동집단을 구별하여 8개 보호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8개 하위요인들의 특징 및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 및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차례로 <표5>, <표6>과 같다.

<표5> 8개의 보호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

		개인적			가족관련			학교·사회적	
		사회적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대인관 계기술	부양육 태도	모양육 태도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비이혼	평균	20.67	59.69	20.77	16.80	17.16	21.16	18.15	19.55
가정	표준편차	4.32	10.47	3.34	3.02	2.93	3.31	3.86	3.18
이혼가정	전체								
	평균	19.42	56.67	19.84	-	-	19.82	16.98	18.34
	표준편차	4.77	10.02	3.58	-	-	3.84	4.17	4.17
	부와 동거								
	평균	19.99	56.28	19.50	15.89	-	19.59	16.98	18.51
	표준편차	4.56	10.00	3.34	3.44	-	4.04	4.04	4.18
	모와 동거								
	평균	18.80	57.09	20.20	-	16.83	20.08	16.98	18.16
	표준편차	4.93	10.06	3.80	-	3.14	3.61	4.33	4.17

<표6> 학교적응유연성 요인과 보호 요인간의 상관

		사회적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대인관 계기술	부양육 태도	모양육 태도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비이혼 가정	학교흥미	.28***	.44***	.32***	.34***	.22***	.28***	.32***	.41***
	성취태도	.28***	.64***	.42***	.38***	.35***	.37***	.32***	.29***
	규범준수	.11	.32***	.32***	.25***	.26***	.15*	.12*	.12
	유연전체	.28***	.58***	.44***	.40***	.34***	.34***	.32***	.34***
전체	학교흥미	.26***	.38***	.32***	-	-	.24***	.30***	.50***
	성취태도	.19**	.53***	.26***	-	-	.32***	.26***	.19**
	규범준수	.12*	.33***	.39***	-	-	.19**	.18**	.23***
	유연전체	.24***	.52***	.40***	-	-	.31***	.32***	.39***
이혼 가정	학교흥미	.22*	.39***	.27**	.12	-	.19*	.31***	.45***
	성취태도	.09	.52***	.17*	.40***	-	.33***	.19*	.13
	규범준수	.10	.26**	.28**	.02	-	.06	.02	.11
	유연전체	.18*	.51***	.31***	.24***	-	.25**	.23**	.30***
모 동거	학교흥미	.31**	.37***	.37***	-	.29**	.30**	.30**	.56***
	성취태도	.32***	.53***	.34***	-	.18*	.30**	.34***	.25**
	규범준수	.20*	.42***	.49***	-	.29**	.34***	.38***	.41***
	유연전체	.34***	.53***	.48***	-	.30**	.38***	.40***	.49***

* $p < .05$ ** $p < .01$ *** $p < .001$

<표6>에서 먼저 보호 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비이혼가정의 경우 $r=.32\sim.58$ 의 범위를, 이혼가정 전체의 경우 $r=.24\sim.52$, 이혼가정 중 부와 동거하는 아동의 경우 $r=.18\sim.51$, 모와 동거하는 아동의 경우 $r=.30\sim.53$ 으로 나타났다. 즉 비이혼 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 전체를 비교한다면 상관의 크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가정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부-동거 아동과 모-동거 아동으로 구분할 경우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이혼 가정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부-동거 아동과 모-동거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의 비교 및 분석에서는 이혼가정을 세분화하여 3집단으로(비이혼 가정, 부-동거 가정, 모-동거 가정)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보호 요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써 비이혼 가정($r=.58$)과 부-동거 가정($r=.51$), 모-동거 가정($r=.53$)으로 유사하였으나, 부의 양육태도와 유연성전체와의 상관에서 비이혼 가정($r=.40$)이 부-동거 가정($r=.24$)에 비하여 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와 교사지지 변인의 경우 비이혼 가정($r=.34$)과 부-동거 가정($r=.30$)으로 유사하였으나, 모-동거 가정의 경우 $r=.49$ 로 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중 규범준수와 교사지지 간의 상관은 비이혼 가정($r=.12$), 부-동거 가정($r=.11$)에 비하여 모-동거 가정의 경우 뚜렷한 관계($r=.41$)가 있었다.

요컨대 <표6>의 결과를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 간의 관계는 비록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비이혼가정과 부-동거 가정 간에는 보다 유사하고, 모-동거 가정의 경우 관계변인 혹은 관계변인간의 상관의 크기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가 갖는 의미는 아래의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와 함께 논의에서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표7>~<표9>은 3개의 집단(비이혼 가정, 부-동거 가정, 모-동거 가정) 각각을 대상으로 8개의 보호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 유연성 하위요인별 점수 및 전체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7>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비이혼가정)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R^2 추가	F	p
학교 흥미	일반자기	.443	.197	.197	66.783	.000
	교사지지	.337	.305	.109	42.489	.000
	부양육태도	.144	.323	.018	7.031	.008
	친구지지	.056	.325	.002	.928	.336
	모양육태도	.054	.327	.002	.720	.397
	가족지지	.037	.327	.001	.280	.597
	사회자기	.023	.328	.000	.154	.695
	대인기술	.008	.328	.000	.013	.910
성취태도	일반자기	.638	.407	.407	187.739	.000
	가족지지	.209	.448	.040	19.782	.000
	교사지지	.123	.461	.014	6.899	.009
	부양육태도	.092	.466	.005	2.546	.112
	대인기술	.060	.469	.002	1.228	.269
	사회자기	.063	.471	.003	1.358	.245
	모양육태도	.057	.473	.002	.855	.356
	친구지지	.005	.473	.000	.008	.930
규범 준수	일반자기	.321	.103	.103	31.330	.000
	대인기술	.204	.133	.030	9.358	.002
	모양육태도	.168	.158	.025	8.171	.005
	사회자기	.139	.171	.013	4.306	.039
	친구지지	.076	.176	.004	1.434	.232
	부양육태도	.065	.178	.002	.782	.377
	가족지지	.086	.182	.004	1.247	.265
	교사지지	.043	.183	.001	.481	.488
학교적응 유연성 전체	일반자기	.584	.341	.341	141.283	.000
	교사지지	.233	.393	.052	23.290	.000
	부양육태도	.191	.424	.031	14.586	.000
	대인기술	.102	.431	.007	3.374	.067
	모양육태도	.073	.434	.003	1.563	.212
	사회자기	.069	.438	.003	1.531	.217
	가족지지	.029	.438	.000	.204	.652
	친구지지	.011	.438	.000	.043	.837

<표8>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부-동거 가정)

	독립변인	β	R2	R2 추가	F	p
학교흥미	교사지지	.449	.201	.201	33.293	.000
	일반자기	.310	.294	.092	17.077	.000
	친구지지	.097	.301	.008	1.434	.233
	대인기술	.059	.304	.003	.468	.495
	가족지지	.045	.305	.002	.308	.580
	부양육태	.027	.306	.000	.075	.784
	사회자기	.025	.306	.000	.077	.782
성취태도	일반자기	.517	.268	.268	48.216	.000
	부양육태	.293	.349	.081	16.359	.000
	사회자기	.156	.369	.020	4.114	.045
	친구지지	.057	.372	.003	.559	.456
	가족지지	.052	.373	.001	.295	.588
	교사지지	.016	.373	.000	.043	.836
	대인기술	.017	.373	.000	.037	.848
규범준수	대인기술	.283	.080	.080	11.463	.001
	일반자기	.164	.102	.022	3.153	.078
	친구지지	.152	.120	.019	2.744	.100
	교사지지	.089	.127	.007	1.026	.313
	사회자기	.089	.132	.005	.793	.375
	부양육태	.033	.133	.001	.147	.702
	가족지지	.048	.135	.001	.162	.688
학교적응 유연성 전체	일반자기	.505	.255	.255	45.176	.000
	교사지지	.546	.298	.043	8.038	.005
	부양육태	.556	.309	.011	2.006	.159
	대인기술	.562	.316	.007	1.284	.259
	사회자기	.570	.325	.010	1.848	.176
	가족지지	.570	.325	.000	.020	.888
	친구지지	.570	.325	.000	.004	.947

<표9> 학교적응유연성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모-동거 가정)

	독립변인	β	R2	R2 추가	F	p
학교흥미	교사지지	.560	.313	.313	54.712	.000
	일반자기	.285	.392	.079	15.491	.000
	사회자기	.162	.410	.018	3.604	.060
	대인기술	.090	.414	.004	.839	.362
	모양육태	.058	.417	.003	.560	.456
	가족지지	.037	.418	.001	.143	.706
	친구지지	.014	.418	.000	.026	.873
성취태도	일반자기	.532	.283	.283	47.317	.000
	가족지지	.201	.322	.039	6.797	.010
	친구지지	.122	.334	.012	2.160	.144
	교사지지	.083	.339	.005	.932	.336
	대인기술	.050	.340	.001	.245	.621
	모양육태	.049	.342	.001	.233	.630
	사회자기	.037	.343	.001	.135	.714
규범준수	대인기술	.493	.243	.243	38.593	.000
	교사지지	.323	.343	.100	18.039	.000
	일반자기	.178	.363	.020	3.705	.057
	사회자기	.200	.386	.023	4.380	.039
	친구지지	.118	.396	.010	1.886	.172
	가족지지	.111	.405	.009	1.823	.180
	모양육태	.056	.407	.002	.336	.563
학교적응 유연성 전체	일반자기	.533	.284	.284	47.586	.000
	교사지지	.420	.456	.172	37.565	.000
	대인기술	.173	.474	.018	4.140	.044
	가족지지	.109	.483	.009	2.083	.152
	친구지지	.093	.490	.006	1.413	.237
	모양육태	.034	.490	.001	.144	.705
	사회자기	.003	.490	.000	.001	.974

3집단의 결과에 따른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의 보호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비

이혼 가정의 경우 43.8%, 부-동거 가정의 경우 32.5%, 모-동거 가정의 경우 49.0%로 나타나 모-동거 가정 아동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8개의 보호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비이혼 가정과 부-동거 가정에서는 성취태도(차례로 47.8%, 37.3%), 모-동거 가정에서는 학교흥미(41.8%)로 나타났다. 모-동거 가정의 경우 성취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3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8개의 보호 요인 중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및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에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이혼 가정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4가지, 학교흥미~유연성 전체점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 교사지지(3가지), 부 혹은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3가지), 가족지지(1가지), 대인기술(1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1가지)로 나타났으며, 부-동거 가정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4가지), 교사지지(2가지),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1가지), 대인기술(1가지), 사회적 자기효능감(1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모-동거 가정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3가지), 교사지지(3가지), 대인기술(2가지), 가족지지(1가지)로 나타났다. 비이혼 가정의 경우 부 혹은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중요한 변인이나 이혼 가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히 모-동거 가정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넷째,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 중 특히 교사지지 변인은 모-동거 가정의 아동에게서 학교흥미에는 31.3%, 규범준수에는 10.0%, 그리고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17.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사지지 변인의 경우 비이혼 가정 아동에게서는 학교흥미에 10.9%, 규범준수에 0.1%,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는 5.2% 만의 설명력만이 있었다. 이는 비이혼가정과 이혼가정에서 특히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는 어느 정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교사지지 변인은 아동의 학교흥미에 20.1%의 높은 영향력이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요컨대 <표7>~<표9>의 결과는, 비이혼 가정이든 이혼가정이든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 등은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보호 요인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부모의 민주적 양육방식 변인, 교사지지 변인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3. 보호 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유연성 예측력 분석

아래에서는 상기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 3> 「보호 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예측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혼가정 아동집단을 대상으로 8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상·하위 집단의 판별에 8개로 구성된 보호 요인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10>은 이혼가정에 속하는 아동들을 부-동거 가정과 모-동거 가정의 아동으로 구별하고,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평균점수란 비이혼가정 아동집단과 이혼가정 아동집단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이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가정 아동은 흥미수준~학교적응유연성

전체수준 모두에서 상위집단에 포함되는 비율에 비하여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부-동거 가정 아동의 경우 37.3%만이 상위집단으로, 62.7%가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동거 가정의 경우 또한 상위집단은 38.5%, 하위집단은 61.5%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 상·하위집단 분포

	흥미수준		성취수준		규범수준		유연성수준		전체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부 동거	57	77	57	77	50	84	50	84	134
	42.5%	57.5%	42.5%	57.5%	37.3%	62.7%	37.3%	62.7%	100.0%
모 동거	50	72	58	64	57	65	47	75	122
	41.0%	59.0%	47.5%	52.5%	46.7%	53.3%	38.5%	61.5%	100.0%
전체	107	149	115	141	107	149	97	159	256
	48.0%	52.0%	54.2%	45.8%	49.3%	50.7%	48.6%	51.4%	100.0%

<표11>~<표14>은 부-동거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요인과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판별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11> 보호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 판별함수 산출결과(부-동거 가정)

	함수	고유값	정준상관	Wilks λ	χ^2	자유도	p
학교흥미	1	.238	.439	.807	27.483	7	.000
성취태도	1	.257	.452	.796	29.357	7	.000
규범준수	1	.240	.440	.806	27.635	7	.000
유연성전체	1	.201	.409	.833	23.489	7	.001

<표11>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서 각각 1개의 판별함수가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정준상관계수의 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거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하며 또한 유도된 판별함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12>는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따라 산출된 판별함수에 각각에 대하여 8개의 보호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구조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들은 계수의 크기(기여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보호 요인별 산출된 구조계수(부-동거 가정)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투입변인	계수	투입변인	계수	투입변인	계수	투입변인	계수
교사지지	.740	일반자기	.700	일반자기	.727	일반자기	.846
일반자기	.665	부양육태	.564	대인기술	.582	교사지지	.450
친구지지	.577	가족지지	.435	사회자기	.285	가족지지	.432
대인기술	.453	친구지지	.387	교사지지	.277	대인기술	.400
사회자기	.423	대인기술	.203	가족지지	.193	부양육태	.311
가족지지	.314	교사지지	.069	부양육태	.070	친구지지	.277
부양육태	.085	사회자기	.027	친구지지	.062	사회자기	.112

<표12>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따라 8개의 보호 요인 중 2~7개의 요인이 $\pm .30$ 이상의 계수의 크기를 보임으로써, 산출된 판별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유연성 하위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걸쳐 차례로 .665, .700, .727, .846의 높은 부하량을 보여 대체로 학교적응유연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의 경우 학교흥미에 .740, 학교적응유

연성 전체에 .450의 부하량을 나타내어 이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는 성취태도와 각각 .564, .435의 부하량, 가족지지는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도 .450 정도의 부하량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은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 영역에서 상위집단 혹은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판별점수를 나타낸 것이다(평균 0.0 표준편차 1.00기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영역 모두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은 판별점수의 평균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산출된 판별함수가 집단구분에 유효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표13>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부-동거 가정)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상위집단	.563	.584	.630	.576
하위집단	-.417	-.433	-.375	-.343

<표 IV-11>은 보호 요인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에 근거하여, 부-동거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로 상·하위집단을 예언할 경우 적중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14> 보호 요인에 의한 집단 분류결과(부-동거 가정)

		소속 예측 집단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수준집단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원집단	상위 N	28	29	36	21	25	25	22	28
	하위 N	15	62	19	58	10	74	13	71
	상위 %	49.1	50.9	63.2	36.8	50.0	50.0	44.0	56.0
	하위 %	19.5	80.5	24.7	75.3	11.9	88.1	15.5	84.5
평균 적중률		67.2%		70.1%		73.9%		69.4%	

<표14>의 결과를 아동들이 원래 소속해 있던 상·하위 집단 분포인 <표10>과 비교를 해보면 보호 요인을 이용한 판별함수를 활용할 경우 학교흥미~학교유연성 전체 영역 모두에서 상·하위 집단 기저비율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흥미~학교유연성 전체 영역에서 원래의 상위집단 비율은 각기 42.5%, 42.5%, 37.5%, 37.3%였으나, 판별함수를 활용할 경우 각각 49.1%, 63.2%, 50.0%, 44.0%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57.5%, 57.5%, 62.7%, 62.7%보다 훨씬 높은 80.5%, 75.3%, 88.1%, 84.5% 로 보다 높은 확률로 예측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하위 집단을 포함한 평균 적중률은 차례로 67.2%, 70.1%, 73.9%, 69.4% 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8개의 보호 요인은 부-동거 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유연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유효한 변인들로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어서 <표15>~<표18>는 모-동거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요인과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판별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15> 보호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 판별함수 산출결과(모-동거 가정)

	함수	고유값	정준상관	Wilks λ	χ^2	자유도	p
학교흥미	1	.511	.582	.662	48.10	7	.000
성취태도	1	.313	.489	.761	31.76	7	.000
규범준수	1	.405	.537	.712	39.58	7	.000
유연성전체	1	.615	.617	.619	55.87	7	.000

<표15>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서 각각 1개의 판별함수가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정준상관계수의 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동거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을 보호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하

며 또한 유도된 판별함수가 유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16>은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따라 산출된 판별함수에 각각에 대하여 8개의 보호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구조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각 하위요인들은 계수의 크기(기여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보호 요인별 산출된 구조계수(모-동거 가정)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투입변인	함수1	투입변인	함수1	투입변인	함수1	투입변인	함수1
교사지지	.884	일반자기	.913	대인기술	.670	교사지지	.647
가족지지	.433	대인기술	.552	일반자기	.570	일반자기	.643
친구지지	.398	친구지지	.471	교사지지	.554	대인기술	.590
대인기술	.381	가족지지	.456	가족지지	.500	친구지지	.459
모양육태	.375	사회자기	.403	모양육태	.436	가족지지	.443
사회자기	.364	교사지지	.308	친구지지	.369	모양육태	.388
일반자기	.316	모양육태	.275	사회자기	.151	사회자기	.352

<표16>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영역에서 학교흥미,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서 8개의 보호 요인 모두가 $\pm .30$ 이상의 계수의 크기를 보임으로써, 산출된 판별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태도 및 규범준수에서는 각기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사회적 자기효능감 요인이 .30이하의 부하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걸쳐 차례로 .316, .913, .570, .643의 높은 부하량을 보임으로써 특히 성취태도와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 요인의 경우 학교흥미 .884, 성취태도 .308, 규범준수 .554,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647의 부하량을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16>에서 특이한 점은 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요인의 경우 여타 보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하량을 보였다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흥미 .375, 성취태도 .275, 규범준수 .436,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388의 부하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부-동거 가정 아동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으로, 이는 이혼가정의 아동이라는 특성 과도 관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계속해서 <표17>는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 영역에서 상위집단 혹은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판별점수를 나타낸 것이다(평균 0.0 표준편차 1.00기준).

<표17> 판별함수의 집단중심점(모-동거 가정)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상위집단	.851	.583	.674	.983
하위집단	-.591	-.529	-.591	-.616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영역 모두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은 판별점수의 평균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산출된 판별함수가 집단구분에 유효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끝으로 <표18>는 보호 요인의 선형조합으로 이루어진 판별함수에 근거하여, 모-동거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별로 상·하위집단을 예언할 경우 적중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18> 보호 요인에 의한 집단 분류결과 (모-동거 가정)

수준집단		소속 예측 집단							
		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유연성전체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원집단	상위 N	37	13	36	22	39	18	33	14
	하위 N	17	55	13	51	15	50	13	62
	상위 %	74.0	26.0	62.1	37.9	68.4	31.6	70.2	29.8
	하위 %	23.6	76.4	20.3	79.7	23.1	76.9	17.3	82.7
평균 적중률		75.4%		71.3%		73.0%		77.9%	

<표14>의 결과를 아동들이 원래 소속해 있던 상·하위 집단 분포인 <표10>과 비교를 해보면 보호 요인을 이용한 판별함수를 활용할 경우 학교흥미~학교유연성 전체 영역 모두에서 상·하위 집단 분류시 기저비율보다 예언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흥미~학교유연성 전체 영역에서 원래의 상위집단 비율은 각기 41.0%, 47.5%, 46.7%, 38.5%였으나, 판별함수를 활용할 경우 각각 74.0%, 62.1%, 68.4%, 70.2%로 예언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원비율이 59.0%, 52.5%, 53.3%, 61.5%였으나 판별함수를 활용할 경우 76.4%, 79.7%, 76.9%, 82.7%로 예측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하위 집단을 포함한 평균 적중률은 차례로 75.4%, 71.3%, 73.0%, 77.9%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8개의 보호 요인은 모-동거 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유연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유효한 변인들로 확인되었다.

다만 <표18>의 결과는 부-동거 아동을 대상으로 산출된 <표18>의 결과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보호 요인의 선형조합에 의한 판별함수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집단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평균적중율은 두 집단에 걸쳐 유사하나, 부-동거 아동의 경우 하위집단의 예측에 보다 유효하며 모-동거 아동의 경우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 모두의 판별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한편으로 동일한 이혼가정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동거 아동이나 모-동거 아동이냐에 따라 보호 요인이 갖는 중요성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적 해석은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유연성이 어떻게 다르며,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또한 보호요인을 이용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의 예측력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이 학교적응유연성(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및 유연성 전체 점수) 점수에서 비이혼가정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하여 일반적 적응,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육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는 김보경(200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한부모가족 아동이 양부모가족 아동에 비해 정서적·인지적 면에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은미, 2007)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등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환경

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주며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능력이 낮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국종(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의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 간에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적응유연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인 초등학교 5학년의 결손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연구를 통하여 두 집단간 성격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이미옥, 1990).

이렇게 선행연구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의 연령, 조사대상의 가정형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사대상의 가정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부모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해체의 원인에 따라 이혼, 사망, 별거, 미혼모 등 다양하며, 비이혼가정이라고 할지라고도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갈등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당시 구조적으로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혼가정 아동이 보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관련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일반적, 사회적), 대인관계기술,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 모

의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8가지 보호 요인 모두 학교적응유연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이 8가지 보호 요인을 이용하여 아동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비이혼 가정의 아동, 이혼가정 중 부-동거 아동, 모-동거 아동이 차이를 보여 3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김혜란(2006)의 이혼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한 결과 아버지(생활수준, 학력, 애정적인 양육행동)와 어머니(직업, 생활수준,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행동)에 따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다르며,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 등 다른 영향을 주므로 부-동거와 모-동거로 구분해야 함을 지지한다.

둘째, 8개의 보호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동거 가정 49.0%, 비이혼 가정 43.8%, 부-동거 가정 3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8개의 보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모-동거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에 가장 높은 향상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8개의 보호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비이혼 가정과 부-동거 가정에서는 성취태도, 학교흥미, 규범준수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쳤다. 모-동거 가정에서는 학교흥미, 규범준수, 성취태도로 나타나 모-동거 가정의 경우 성취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떤 일이든 흥미를 가지면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모-동거 아동의 학교흥미는 교사의 지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충분히 받으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통해 학교적응유연성의 또 다른 하위 요소인 성취태

도나 규범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또한 성취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8개의 보호 요인 중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 및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비이혼가정의 경우 학교흥미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지지,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이며, 성취태도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이고, 규범준수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이며,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교사의 지지,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 순이었다. 즉 비이혼가정의 경우 학교적응유연성(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및 유연성 전체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은 모두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부-동거와 모-동거 아동의 경우 학교흥미는 교사의 지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고 성취태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으며 부-동거 아동일 경우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모-동거 아동일 경우 가족의 지지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규범준수 또한 대인관계기술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고, 부-동거 아동일 경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모-동거 아동일 교사의 지지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는 공통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지지가 높으며, 모-동거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기술도 높게 나타났다.

비이혼 가정, 부-동거와 모-동거 아동의 경우 보호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인 및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바탕으로 동거부모에 따라 도움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공통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비이혼가정과 이혼가정 모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통제하는 노력

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므로 교실에서 꾸준히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여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대상은 다르지만 한부모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본 박국종(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아동 모두 적응유연성 보호요인 중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 대인관계기술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학교 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연(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학교적응유연성에 일반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교사의 지지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관련이 깊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변인과 교사의 지지 변인에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변인을 살펴보면,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의 상관에서 비이혼가정은 부-동거 아동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경우 비이혼가정과 모-동거 아동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단독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비이혼가정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모-동거 아동의 모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단독영향력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이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중요한 변인이긴 하나 독립적으로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부모의 존재가 특별히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비이혼가정의 아동일 경우 부모의 존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기본 바탕이 되어 학교적응유연성에 충분히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로 다른 요인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혼가정은 비이혼가정에 비하여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녀교육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동거 가정에서 직장과의 자녀교육을 양립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머니의 과중한 역할 수행은 자녀와의 접촉시간 부족으로 나타나 자녀는 부의 상실뿐만 아니라 모 상실까지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사의 지지 변인을 살펴보면, 비이혼가정 아동과 부-동거 아동은 유사하나, 모-동거 아동의 경우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단독영향력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모-동거 아동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 중 규범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지지의 단독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비이혼가정과 부-동거 아동에 비하여 모-동거 아동이 뚜렷하게 많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부의 역할은 가정으로서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고 자녀의 좋은 동료이며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동거 아동의 경우, 부의 박탈은 사랑의 부족과 동시에 동일시 대상의 결여로 사회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건전한 습관과 버릇을 배우는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etherington(1991)의 연구에서 양육자가 어머니일 경우 주로 아동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훈육에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여 훈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온정, 애정 및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훈육을 제공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낮은 질의 모-자 관계를 갖는 아동들에 비해 행동문제를 덜 나타내고, 보다 높은 자아 존중감과 보다 나은 학업 수행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모-동거 가정의 경우 가정에서 충분히 받지 못한 훈육 및 규범 준수 등의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에게서 찾지 못하고 교사에

게서 대신 찾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동거 가정의 경우 보다 긍정적인 교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교육도 필요하다.

다. 보호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의 예측력 검증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소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부-동거와 모-동거 아동을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요소와 전체 모두에서 하위집단에 분류되는 비율이 상위집단에 분류되는 비율보다 높았으며, 8개의 보호 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판별분석한 결과 산출된 정준상관의 크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투입된 보호 요인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있어 상·하위 아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8개의 보호 요인들이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얼마나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의 보호 요인 중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개수는 부-동거 아동의 경우 2~7개, 모-동거 아동의 7~8개로 나타났다. 즉, 모-동거 아동의 경우 더 많은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부-동거와 모-동거 아동 모두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동거 아동의 성취태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지지 요인은 부-동거 아동일 경우 학교흥미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는 영향력이 높으나 성취태도와 규범준수에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모-동거 아동의 경우 학교흥미~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교사의 지지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사의 지지 요인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학교흥미였다. 이는 모-동거 아동은 교사의 지지를 통해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고루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흥미에 높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높아진 학교흥미는 다른 보호요인에 영향을 주어 학교적응유연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은 경제적 문제, 부 또는 모의 상실, 동거부모의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이 자녀에게도 전달되어 비이혼가정의 아동의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8개의 보호 요인에 의한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 판별함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적응유연성을 구성하는 4영역 모두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판별점수의 평균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집단구분에 유효한 변인들로 나타났으며, 보호 요인들을 통한 판별에 있어 부-동거 아동과 모-동거 아동에 따라 상·하위 집단 예측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상·하위집단 예측에 8개의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구성 요인에 영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동거 아동의 상위집단 예측에는 성취태도, 규범준수, 학교흥미, 유연성 전체이고, 하위집단을 예측에는 규범준수, 학교흥미, 성취태도, 유연성 전체이며, 모-동거 아동의 상위집단 예측에는 학교흥미, 유연성 전체, 규범준수, 성취태도이고, 하위집단 예측에는 유연성 전체, 성취태도, 규범준수, 학교흥미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

을 나타내었다.

보호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을 판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학교적응유연성에 보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이미연(2006)은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남아의 상위집단 예측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지지 변인을, 남아의 하위집단과 여아의 상위집단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위 5개의 예측변인과 함께 사회적 자기효능감,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여아의 하위집단 아동 예측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혼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가영(2006)의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청소년 중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보호 요인으로 계획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기술,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사의 지지, 친척의 지지, 역할모델 존재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 유연성을 상·하위집단을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적중률은 부-동거 아동과 모-동거 아동이 유사하나 부-동거 아동의 경우 하위집단의 예측이 보다 유효하며 모-동거 아동의 경우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의 판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시기에 특히, 어머니의 보살핌이 학교적응 유연성을 높이는데 밑거름을 제공해 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한새(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평균에서 부와 모를 나누어 조사한 애착에 대해 부 지지와 부 애착이 유의미한 낮은 점수를 보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성인들은 부-동거 아동일 경우 어머니의 역할인 표현적, 정서적 역할, 도덕적 교육 담당,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 아동에 비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이 낮으며,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 모두에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들은 보호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보호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아동을 적절히 변별해주는데 효과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에 학교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중립적 시각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 교육, 교사연수 등도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이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마련에 일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보호 요인을 적절하게 제공한다면 충분히 일반가정 아동들과 같은 학교적응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혼가정 아동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주변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적으므로 앞으로도 추후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요약

본 연구는 이혼가정이라는 위험 요인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대한 보호 요인의 집단예측력은 어떠한가?

여기서 보호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일반적, 사회적), 대인관계기술,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두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7000부를 배부하여 652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자료는 282부였으나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256부를 사용 가능한 자료로 확보하였다. 비이혼가정 아동은 단순무선표집하여 27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김복환의 자기효능감 척도와 박현선의 대인관계 기술척도, 민주적 부모양육태도 척도,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현선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5점 리커트 방식을, 대인관계, 부모양육태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적응유연성은 4점 리커트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 검증(t-test)을 수행하였고,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의 산출과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학교흥미,

성취태도, 규범준수 및 유연성 전체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이 비이혼가정에 비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가정 (부-동거 가정, 모-동거 가정), 비이혼가정 모두에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 변인들은 보호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교사의 지지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점이 있었다. 비이혼가정의 경우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긴하나 단독영향력이 적었으며, 모-동거 가정의 경우 교사의 지지변인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

셋째, 보호요인을 이용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 상·하위 집단의 예측력 검증에서는 8개의 보호요인이 부-동거 아동과 모-동거 아동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유효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동거 아동의 경우 하위집단의 예측이 보다 유효하며 모-동거 아동의 경우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모두의 판별에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상·하위집단 예측에 8개의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구성 요인에 영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부-동거 아동의 상위집단 예측에는 성취태도, 규범준수, 학교흥미, 유연성 전체이고, 하위집단을 예측에는 규범준수, 학교흥미, 성취태도, 유연성 전체이며, 모-동거 아동의 상위집단 예측에는 학교흥미, 유연성 전체, 규범준수, 성취태도이고, 하위집단 예측에는 유연성 전체, 성취태도, 규범준수, 학교흥미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나타내었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의 아동과 비이혼가정 아동 간에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 모두에서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들은 보호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호요인들은 대체로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 상·하위 아동을 적절히 변별해주는 효과적인 변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아동에 있어 학교적응유연성에 관련된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적인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이 현재 나타내는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보호 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이혼 가정 아동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요소들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대한 경로분석과 함께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제시한 요인들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으나 이들 중 일부분만으로 제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상을 표집하여 이혼 후 경과 기간, 연령, 양육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의 일치여부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이혼가정 아동이 가진 본래의 학교적응유연성을 회복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입 방안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이에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가영(2006).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집(2004).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학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복환(2003). 초등학생의 자의식, 자기효능감 및 비합리적 신념과 발표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승미(1998).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한(2003). 알코올 중독자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우울, 불안, 자기개념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란(2006). 이혼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4).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관점들의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집, 179-367
- 문선화(1999). 부자가족에서의 아동의 문제와 복지대책. 한국아동복지학회,

213-233.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국중(2007). 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명숙(1996).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교육에 관한 고찰.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83-310.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Resilience)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국선(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은선(2005).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한새(2006). 이혼가정의 양육 부모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 적응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2), 201-217.

유효현(2000). 자기효능감과 학습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연(2006).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소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옥(1990).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아동의 성격

-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1996).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재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적응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병숙(2004).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학교사회 환경적 보호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 외(1997).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주소희(2004).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 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지은선(2001).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황논집. 239-255
- 진혜민(2007). 빈곤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2007).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8).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 Bergstrand, C, R. (1998).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Joseph D. Noshpitz et al. (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7, 63-74, NY: John Wiley & Sons, Inc.
- Cowen, E, L., Pedro-Carroll, J, L. & Alpert-Gillis, L. J. (1990).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and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727-735.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ive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Gelman, D. (1991). The miracle of resiliency. *Newsweek*, 117(26), 44-47.
- Healy, J. M., Jr., Malley, J. E., Stewart, A. J. (1990). Children and their fathers after parental separ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 531-543.
- Hetherington. E. M. (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39-56.
- Jenkins, J. M. & Smith, M. A.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rmonious hom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0-69.
- Lahey, B. B., Hartdagen, S. E., Frick, P. J., McBurnett, K., Connor, R. & Hynd, G. W. (1988). Conduct disorder: Parsing the confounded relation to parental divorce and antisocial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34–337.

Maccoby, E. E. & Mnookin, R. H. (1992). *Dividing the chi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 425–444

Reed-Victor, E. & Stronge, J. H. (2002). Homeless students and resilience: Staff perspectives o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hildren & Poverty*, 8(2), pp. 159–183.

Santrock, J. W. & Warshak, R. A. (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Skitka, L. W., & Frazier, M. (1995). Ameliorating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Do small group interventions work?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4(3), 159–179

Thomas, A. M. & Forehand, R. (1992). The role of parental variables in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Prediction of teacher-report of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Tschann, J. M., Johnston, J. R., Klein, M., & Wallerstein, J. S.(1989). Family process and children's functioning during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31–444.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Basic Books.

Wierson, M. & Forehand, R., Fauber, R. & McCombs, A. (1989).

Buffering young male adolescents against negative parental divorce influences: The role of good parent-adolescent relations.
Child Study Journal, 19, 101-116.



부록-설문지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내와 학교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과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는 데는 어떤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답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는 이름을 적지 않고 답을 적어 넣으로 여러분이 답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설문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항목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빠진 답이 많은 설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써 답 해주신 설문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작성** 해 주십시오(이제부터 떠오르는 답에 ○표를 하세요).

★ 설문에 참여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 김 민 강

지도교수 : 이 희 영

연락처 : 010-3370-1159

하 나	◆ 아래 문장을 읽어 가면서 여러분이 자신과 같다 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 게 만들 자신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즉시 시작하기 어렵 다.	1	2	3	4	5
3	어떤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내 지 못한다.	1	2	3	4	5
6	나는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해 버린다.	1	2	3	4	5
7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내가 먼저 상대방에 게 다가간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피해 버린다.	1	2	3	4	5
9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작해 보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 해도 쉽게 그만 둔다.	1	2	3	4	5
11	맘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끝까지 해 보려 노력한다.	1	2	3	4	5
12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1	2	3	4	5
13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잘 안되면 곧 포기한다.	1	2	3	4	5
14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별로 안보이더라도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기대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지 못한다.	1	2	3	4	5
1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은 피한다.	1	2	3	4	5
17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18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어색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5

19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내지 못할 것만 같다.	1	2	3	4	5
20	나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1	2	3	4	5
21	나는 내 스스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쉽게 일을 포기한다.	1	2	3	4	5
23	나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1	2	3	4
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1	2	3	4
3 나는 친구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잘 들어준다.	1	2	3	4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 해 준다.	1	2	3	4
5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싸우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	2	3	4
6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덩달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다.	1	2	3	4
7 친구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비슷한 문항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만약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표를 안해도 됩니다.)

아버지				질문	어머니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나를 귀여워하신다.	1	2	3	4
1	2	3	4	2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다고 믿어 주신다.	1	2	3	4

1	2	3	4	3	내가 조금만 다치거나 아파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	1	2	3	4
1	2	3	4	4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관심을 갖는다.	1	2	3	4
1	2	3	4	5	나를 잘 도와주신다.	1	2	3	4

넷	◆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각 사람에게 본인이나 느끼는 감정정도를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 친구, 선생님 각각의 해당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보 기>

<보기 질문> 1. 내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	대상	지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을 대상으로 '약간 그렇다'일 경우	가족	1	2	③	4
1 친구를 대상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일 경우	친구	1	②	3	4
선생님을 대상으로 '매우 그렇다'일 경우	선생님	1	2	3	④

질 문	대상	지지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2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3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보여 준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4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준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5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물건이나 장소)을 빌려준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6	내가 부탁할 때마다 시간을 내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가족	1	2	3	4
		친구	1	2	3	4
		선생님	1	2	3	4

다 ◆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는 내용입니다.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2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3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4	담임선생님이 좋다.	1	2	3	4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6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7	수업시간에 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내게 있어 학교성적은 참으로 중요하다.	1	2	3	4
9	나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	1	2	3	4
10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1	나는 수업 시 학습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12	나의 학교성적은 좋은 편이다.	1	2	3	4
13	숙제는 내 힘으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14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15	나는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 나간다.	1	2	3	4
16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1	2	3	4
17	시험 볼 때 커닝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8	학교에 지각을 한다.	1	2	3	4
19	허락 없이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결석을 한다.	1	2	3	4
20	나는 학교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린 적이 있다.	1	2	3	4
21	수업시간에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 자리를 배운 적이 있다.	1	2	3	4

